

전북지역 아동 '삶의 질' 향상됐다

도교육청, 아동 삶의 질 향상 위한 토론회... 2015년 16위에서 올해 8위로 약진

전북지역 아동 삶의 질이 향상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0일 전북대학교에서 '2018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 본 전북 아동의 삶의 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진행한 '2018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결과를 통해 전북지역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지역 아동 삶의 질은 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년의 평가에서 15위(2012년), 13위(2013년), 16위(2015년) 등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hild well-being composite index)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

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을 조사한 후 합산해 산출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과 주거환경, 위험과 안전 부문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민상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광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유선 전주중앙여고 학생이 '한국아동, 전북아동, 전북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장은성 기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승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나라 전북대 아동학과 3학년 ▲이승일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조영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 등이 참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아동 삶의 질은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동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고교생 2명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

학산고 3년 김옥현·전북과학고 2년 차이현

도내 고교생 2명이 2018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게 됐다. 주인공은 김옥현(학산고 3년), 차이현(전북과학고 2년) 학생이다. 전국의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인재상에 고등학교 본과에서 2명의 고교생이 선발됐다. 김옥현(학산고 3년) 양은 조 리분야 기능적 소질 및 학문적 탐구능력이 탁월하여 조리공인 자격증 6종, 전국요리대회 수차례 입상하는 등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뛰어나다. 차이현(전북과학고 2년) 양은 'Sunshine CEO'라는 확고한 꿈



김옥현



차이현

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암환자와 시각장애우를 위한 스마트 홈 시스템 개발, 선사인밴드 개발 등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장은성 기자

“교육가족들이 소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도교육청,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 선정·발표

전북교육청이 '2018 하반기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 선정·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사진 711편, 웹툰 151편, 청렴슬로건 490건, 동시 840편 등 총 2192편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각 분야별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등 총 6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은 사진 임석중(새만금초 교원) '우리가 꽃이에요', 웹툰 서제빈(원광정보예술고 학생) '하나뿐인 노을', 청렴슬로건 허상미(선동초 교원) '청탁은 여지없이! 청렴은 거침없이!', 동시 정진영(부안동초 학

생) '아빠와 나의 사랑탑'이 각각 차지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북교육 소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신은섭(전 봉서초 교장)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4개분야 모두 학교 현장의 생생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앞으로 너도나도 공모전을 통해 교육가족들이 소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오후 4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 된다. /장은성 기자



사진 대상 임석중 '우리가 꽃이에요' (왼쪽)와 웹툰 대상 서제빈 '하나뿐인 노을'.



전북형 자유학기 발전방안 찾는다

자유학기 공감 토크 13일 개최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옛 선편리워)에서 '자유학기 공감 토크'를 개최한다. 자유학기 공감 토크는 도내 중학교 교원 및 전문직 등 희망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자유학기(년)제를 돌아보고 성장·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공감 토크에서는 먼저 내년에 자유학기가 더욱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부여된 자유학기 활동 편성 운영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이어 내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유학기 너도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90분 동안 특강을 통해 자유학기를 돌아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교장, 교감, 전문직, 교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과 상황, 학교 규모와 주변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각 학교의 자유학기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킬 것으로서 교사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유학기 운영의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군사학과, 학사운영평가 2년 연속 우수대학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군사학과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학·군 협약대학 학사운영평가에서 전 분야 우수평가를 받았다. 군사학과 교육체계 발전과 우수 군간부 육성을 위해 매년 육군본부가 시행하는 학사운영평가는 전국의 육

군협약 12개 대학 군사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학생모집, 학생 관리, 대학본부 지원, 교과편성 및 교육체계 발전, 졸업 및 임관, 위탁 훈련, 대학원 학위과정 관리, 홍보 활동, 육군 추천 우수교수 채용 등 다양

한 분야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 평가 결과에서 원광대 군사학과는 9개 전 분야 우수 평가를 받아 학사 운영 평가 우수대학에 올랐다. 특히, 재학생들의 전·사적지 문화탐방 등을 통한 살아있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초전통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최정에 장교 양성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 결과로 이어졌다. 군사학과장 김태성 교수는 "대학본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군사학과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들의 정성이 함께 모여 이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장교 육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우리나라 최고 민간사관학교로서의 전통을 이룩해 지켜나가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청소년정책위에 청소년 필수 포함해야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여가부 세부기준 마련키로

청년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법적 근거를 둔 기구다.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위원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촉되

는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표성 있는 청소년을 위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시스

외국인 유학생에 HACCP 식품안전 교육 실시

농생명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추진위원장 윤명숙)이 30일 도내 5개 대학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생명 HACCP 식품안전 공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생명과 한문화 융합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학생들에게 농식품 관련 기업에 대한 취·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 교육에는 전북대, 원광대 식품공학과와 우석대 외식산업조리학과 등 관련 분야 전공 유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북대 HACCP 교육원과 연계해 HACCP 팀원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내용 및 실습실 견학 등이 진행

됐다. 특히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의 개요에서부터 시스템 도입 효과, 구축을 위한 기본 소양 등의 이론 교육과 HACCP 시스템이 구축된 푸드웨어(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공장 견학을 통해 개인위생 실습 및 HACCP 생산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명숙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추진위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식과 식품 등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전라북도 및 국내 기업 등 국내 취업을 유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선순환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